



중년기 기혼 성인의 부모 관련 생애사건과 부모됨 만족도와 관련: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

The Association Between Recent Experiences of Parent-Related Life Events and Parental Satisfaction Among Middle-Aged Adults:
The Moderating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

김나현 · 김경민 · 한경혜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)

< 연구 목적 >

- 중년기는 부모의 노화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지난 삶을 평가하고,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는 시기이다.
- 본 연구는 **중년기 기혼 성인(47-55세)**의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 혹은 죽음과 같은 노화와 관련된 생애사건 경험이 그들의 부모됨 만족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, 미래시간조망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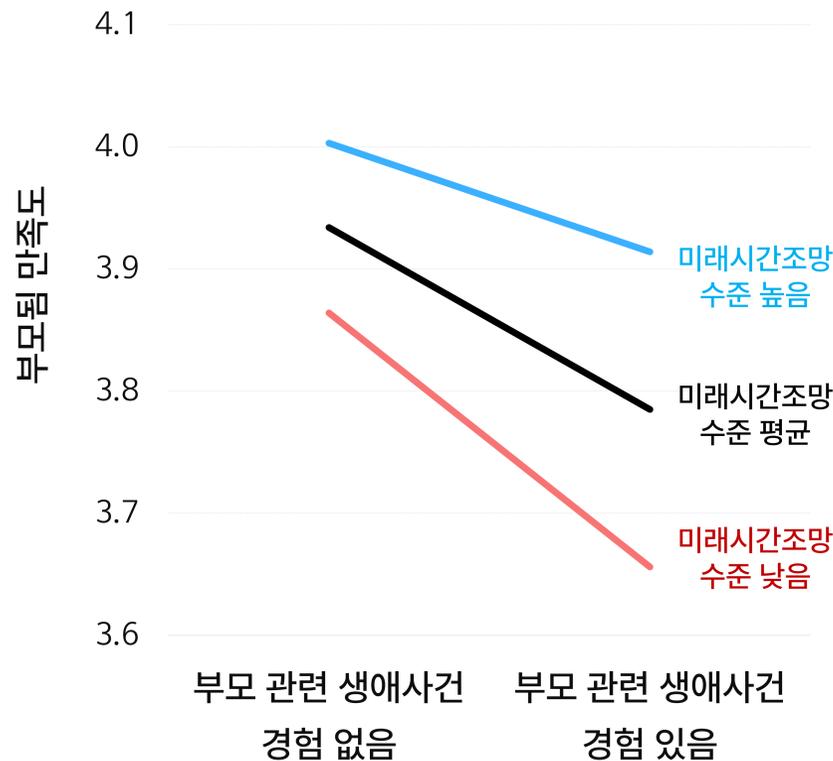
< 연구 방법 >

- **분석자료**
‘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’ 1차년도 (2010년) 자료 중 자녀가 있는 중년기 기혼 성인 4,147명 (남성 46.3%, 여성 53.7%)
- **주요 변수**
 - **부모 관련 생애사건 경험**: 지난 1년 이내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 혹은 죽음을 경험하였는지 여부
 - **부모됨 만족도**: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감을 제공하는지 5점 척도 6문항 ($\alpha = .80$; $M = 3.91$, $SD = 0.58$)
 - **미래시간조망**: 단일문항 (1=이미 나이 들고 기회가 없다~5=아직 젊고 기회가 많다; $M = 3.00$, $SD = 0.87$)
 - **통제변수**: 연령, 성별, 교육수준, 취업 및 소득 활동 여부, 종교 유무, 자녀 수, 생존 부모의 수,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
- **분석방법**
 - 기술통계, 상관관계 분석, 위계적 회귀분석 (SPSS Statistics 21.0 사용)
 -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Johnson-Neyman 기법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

<표 1> 중년기 기혼 성인의 부모 관련 생애사건 경험 비율 (N = 4,147)

부모 관련 생애사건	본인의 부모	배우자의 부모	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
부모 관련 생애사건	11.8%	9.3%	18.8%
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	9.4%	7.1%	14.6%
부모의 사망	2.6%	2.3%	4.7%

<그림 1> 부모 관련 생애사건과 부모됨 만족도 간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



< 연구 결과 >

- 중년기 기혼 성인 중 **18.8%**가 지난 1년 이내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관련된 생애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(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 14.6%, 부모의 사망 4.8%).
-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의 경험 각각 중년기 기혼 성인의 부모됨 만족도와 **유의한 부적 상관**을, 미래시간조망 수준은 그들의 부모됨 만족도와 **유의한 정적 상관**을 보였다.
- 연령, 성별, 교육수준, 취업 및 소득 활동 여부, 종교 유무, 자녀 수, 생존 부모의 수,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, **부모와 관련된 생애사건** (특히,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)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**현재 자녀와의 부모됨 만족도가 낮았다** ($B = -0.12$, $p < .001$).
- 부모 관련 생애사건 경험과 부모됨 만족도 간의 부적 관련성은 **미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** 유의하게 조절되었다 ($B = 0.07$, $p < .01$).
 - ⇒ 자신이 젊고 앞으로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인식할수록, 부모와 관련된 생애사건 경험과 부모됨 만족도 간의 부적 관련성이 완화
 - ⇒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남은 시간과 기회가 없다고 인식할수록, 부모와 관련된 생애사건 경험과 부모됨 만족도 간의 부적 관련성이 강화

< 논의 및 결론 >

-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맥락 안에서 부모의 노화와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중년기 성인들의 부모됨 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며, 특히 중년기 성인이 자신에게 남은 미래와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** 본 연구에서 사용된 “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”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 (연구책임자: 한경혜)
** Contact: 김나현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; na1hyun@snu.ac.kr)